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10. 20(목) 10:00

제239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4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7.

2. 제안이유

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 ombudsman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제3호)
- 나.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
(안 제11조의2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) 및 신설(제6항, 제7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2. 10. 11. ~ 10. 17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

나. 주요 내용

- 1) 아동 ombudsman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제3호)
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ombudsman의 용어를 정의함
- 2)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
(안 제11조의2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) 및 신설(제6항, 제7항)
ombudsman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성인원과 주요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

다. 검토의견

유엔아동권리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: CRC)은,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, 발달권, 보호권,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(4대 권리)를 명시한 협약임. 이 협약은 1989. 11. 20.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고, 2019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음.

○ (금천구)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진행 경과

- ▶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 : 2017. 10. 13.
- ▶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: 2019. 1. 15.
- ▶ 아동친화도시 1차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완 : 2019. 3. 25.
- ▶ 아동친화도시 2차 대면심의 : 2019. 6. 19.
- ▶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 : 2019. 7. 8.
- ▶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: 2019. 8. 22.

-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고,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구체적인 사항 중 아동 ombuds퍼슨의 실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[시행 2022. 7. 1.] [법률 제17784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